



발간년월 2020년 3월(제17호) 발행처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주 소 (25798) 강원도 동해시 공단1로 177 자유무역지역관리원 3층
자료문의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물류연구기획팀 담 당 물류연구기획팀장 총 괄 이사장 Tel 033-522-6503 Fax 033-522-6505



NLRSC

Monthly Newsletter vol. 17

동해역 KTX 개통

Contents

● 기고문

- ▶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의 시작은 국제전문가 육성이다.

● 주요 이슈

- ▶ 러시아 비즈니스 스쿨 ROST 대표 방문

● 항만·물류 통계

- ▶ 2020년 국내 수출입 현황(2월)
- ▶ 2020년 동해·묵호항 품목별 화물처리 실적(1월)

● 항만·물류 정책동향

- ▶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

● 주변국 국제동향

- ▶ 러시아 동향

● 극동러시아 주요 행사

- ▶ ROST
- ▶ PITE 2020
- ▶ 블라디보스토크 개청 160주년 기념행사

■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의 시작은 국제전문가 육성이다

대외적으로 미·중·일 등 선진국의 글로벌 무역분쟁 중에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국제적 재난에 대한 글로벌 경제환경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핵심의제로 부상하였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전략물자 전반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로 우리 경제 핵심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고, 올해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글로벌 경제환경 전반에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상황에 WTO에서는 판데믹 (Pandemic, 세계 대유행) 선언을 하였고, 이 사태를 대재앙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피해의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으로 행정부와 관련 전문가, 국민 모두의 지혜로 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전방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자발적 위기관리 참여와 공동 노력이 절실히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행정시스템의 가동과 국제전문가들이 참여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그렇지만은 않다. 대형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제전문가 부족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에 필자는 국제전문가 육성을 위한 절실함에 국가적 차원의 논거도 필요하지만, 강원도와 지자체의 입장에서 선제적 준비와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문제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현재 강원도는 대외적인 분야에 있어서 국제 경쟁력 확보와 국제정보 모니터링화, 무역 및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 내 4개국¹⁾ 해외본부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공무원을 현지 주재관으로 파견하여 도의 경제, 무역, 투자, 문화, 관광 분야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신북방정책과 남방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평가된다.

동해시도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참여와 자매도시, 우호도시인 중국, 일본, 러시아에 공무원 교환연수 등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국제무역향을 가진 도시의 성격에 맞는 해외네트워크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강원도와 동해시의 주재관 파견 및 교환연수는 그 효율성에 있어 명과 암이 갈리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특성상 행정, 기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주기로 담당자가 바뀌게 되며(순환직 보직), 새로운 담당자의 파견 및 연수는 업무 숙련 기간 동안 현지 적응 및 민원 불편 등이 초래된다는 점과 내부적인 문제(승진, 퇴직 등)로 인한 관행적 폐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직무성과에 따른 장기파견과 보직 보장을 통해 국제전문가로 육성하여 복귀 후 그 분야에서 업무수행의 효율을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와 인접한 국가 대부분이 사회주의 국가이며 인간관계를 매개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문가 육성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교류는 다변화된 국제사회를 고려할 때 더욱더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근 지방정부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 광 열 원장
영월산업진흥원

1) 중국(북경), 일본(동경), 베트남(호치민),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신입시절 담당했던 업무를 계속해서 그 사람이 과장, 국장이 될 때까지 담당하면서 퇴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수년 전에 만났던 중국, 일본의 국제교류업무, 통상분야 담당자들이 이제는 정책을 반영하는 관리자가 되어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 업무수행을 하는 모습을 본다. 필자도 강원도가 교류하는 중국 지린성의 국제교류, 통상분야, 일본 돗토리현의 통상, 해운물류분야, 러시아 연해주의 경제교류 분야의 과장, 국장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전문가가 되어 그 지역정책을 견인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 이는 강원도와 지자체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행정시스템이다. 우리의 경우처럼 단기과건 및 연수로 업무의 연속성과 성과가 떨어지는 해외과건 제도는 지방정부간에 깊은 신뢰를 줄 수 없을 것이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전문성과 신뢰 관계 구축이 중요한 이유이다. 인접한 지방정부는 예전부터 현지에서 많은 경험과 인적 관계, 정보 등을 축적하며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력이고, 지방정부의 역량이며,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최근 동해시가 러시아 연해주에 수산자원 및 무역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설립에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 지자체에서 해외에 파견된 주재관제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미래 동해시를 위해 국제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큰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 사료된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환경을 보면 강원도와 동해시의 글로벌을 향한 도전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다. 동북아지사성장회의,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동해·묵호항의 글로벌 게이트도전과 역할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남방정책에 동승하기 위한 준비된 지자체의 모습이 그 어느 때 절실하다.

4월 1일이 되면 올해로 동해시 개청 40주년을 맞이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여파로 지역 사회분위기 정체되어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지도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결집된 역량과 집중이 요구된다. 대외적 사항을 고려한 대내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전략에 국제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해 본다.

■ 예브게니 슈카루파 ROST(러시아 비즈니스 스쿨) 대표가 지난 2월 말 센터에 방문하여 2020년 4월에 개최될 ROST 프로그램 논의

지난 2월 25일, 26일 양일간 러시아 중소기업연합회 블라디보스토크 지부 소속인 ROST(러시아 비즈니스 스쿨) 대표 예브게니 슈카루파가 동해시 및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동해시 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2020년 4월에 개최될 ROST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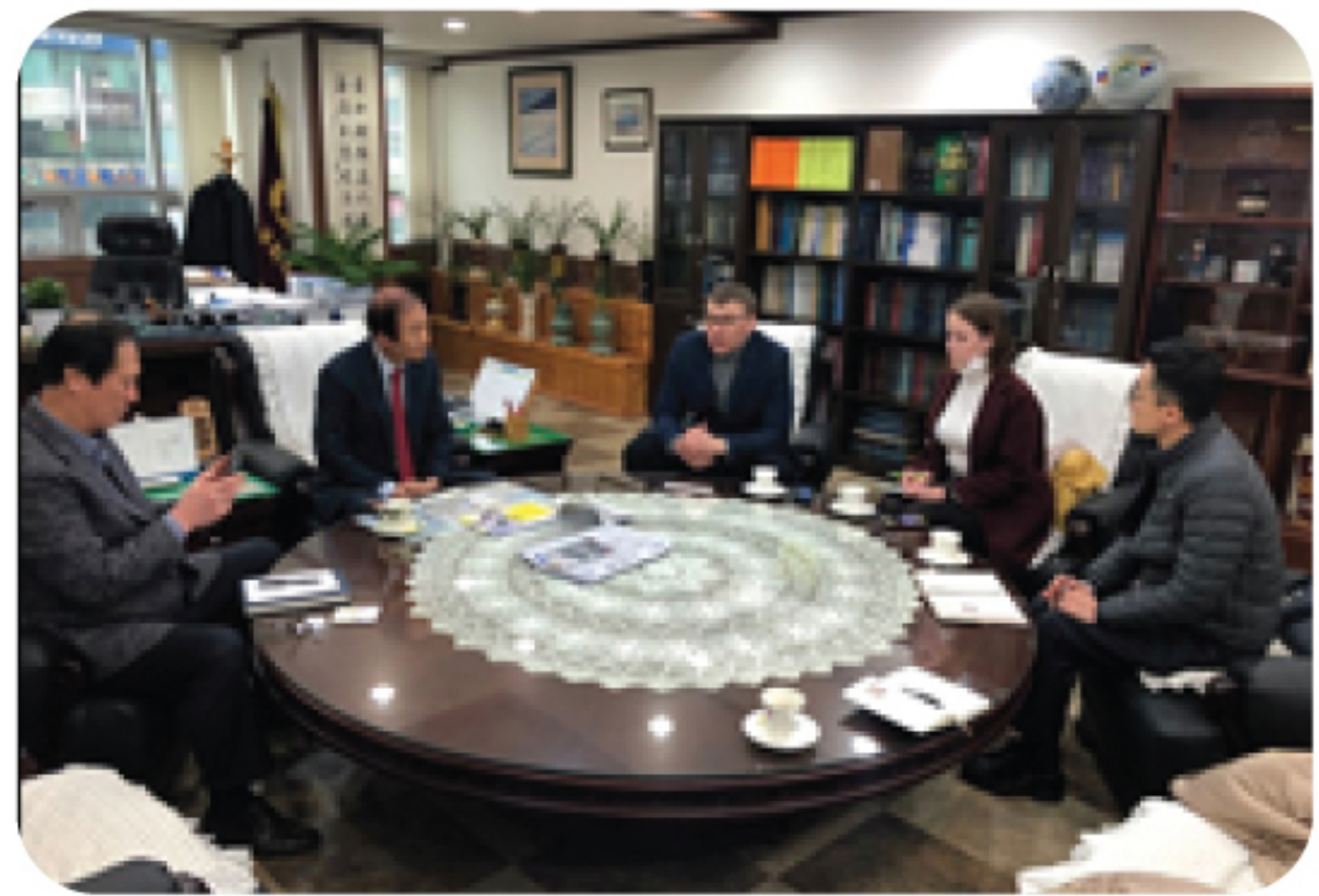
ROST는 러시아 중소기업 연합회 연해주 지부와 극동연방대학에서 만든 단체이며 연해주 정부와 여러 투자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ROST 프로그램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 대상으로 러시아 기업과의 교류(B2B) 및 강연, 관계기관 견학, 러시아 주정부와 토론 등의 콘텐츠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2020년 4월에 개최될 ROST 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 11월에 시행했었던 프로그램보다 좀 더 기업 간 교류, 네트워크 확대 등을 보완·개선하여 진행된다고 한다.

한편 예브게니 슈카루파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강원도와 동해시 지역에 많은 수출입 기업의 참여로 최근 북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4월의 ROST 프로그램 일정이 변동될 수는 있지만, 센터와 함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ROST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0년 ROST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본 월간동향에서 심도 있게 다룰 생각이다.



■ 2020년 국내 수출입 현황(2월)

2020년 2월 국내 수출 413억 달러, 수입 371억 달러, 무역수지 41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5%(17.8억 달러) 증가, 수입 1.4%(5억 달러) 증가

[국내 수출입 현황(2월)]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수출	2020	금액	43,260	41,262										84,522	
		증감률	△6.3	4.5										△1.8	
	2019	금액	46,169	39,482	47,003	48,781	45,704	44,008	46,078	44,020	44,629	46,649	44,041	45,668	542,232
		증감률	△6.2	△11.3	△8.4	△2.1	△9.8	△13.8	△11.1	△14.0	△11.9	△15.0	△14.5	△5.3	△10.4
수입	2020	금액	42,725	37,147										79,872	
		증감률	△5.4	1.4										△2.4	
	2019	금액	45,153	36,651	41,992	45,047	43,620	40,105	43,762	42,457	38,741	41,397	40,729	43,687	503,341
		증감률	△1.5	△12.2	△6.5	3.1	△1.9	△10.9	△2.6	△4.3	△5.6	△14.6	△13.0	△0.7	△6.0
무역수지	2020	금액	535	4,115										4,650	
	2019	금액	1,016	2,830	5,011	3,734	2,084	3,904	2,316	1,563	5,888	5,252	3,312	1,981	38,891

주 1)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임

주 2)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1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 2020년 동해·묵호항 품목별 화물처리실적(1월)

2020년 1월 동해·묵호항 전년대비 품목별 화물처리 실적은 전년월대비 680,062톤 감소하였음. 특히 기타광석 및 생산품, 시멘트, 모래 등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철광석, 비철금속 및 그 제품 등은 소폭 증가하였음

[동해·묵호항 전년 월 대비 품목별 화물처리실적(1월)]

[단위 : 톤]

구 분	합 계	어패류, 갑각류 등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철광석	기타광석 및 생산품	석유 정제품	화학공업 생산품	목재, 목탄 코르크 등	비철금속 및 그제품	기계류 및 부품	조제식품 음료, 주류 등	기타
2020년 1월	2,383,932	1,043	667,405	23,411	79,222	441,000	16,403	1,095,611	51,383	3,866	1,086	3,502	0	0	0
2019년 1월	3,063,994	1,187	851,677	131,707	134,258	484,680	0	1,351,238	99,941	4,307	909	48	3,126	481	435

주1. 항만시설 이용신고(화물료 신고)가 완료된 정보로 생성된 통계입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PORT MIS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서는 지난 3월 12일 일자리 창출 산업공간 육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²⁾ 활성화 방안'을 발표³⁾

최근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무역장벽 철폐, 국제물류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항만 공간에 대한 고도화 및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무역항에 항만배후단지를 조성·공급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항만배후단지의 역할은 주로 항만지원기능에 국한되어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지자체와 관계기관,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1) 항만배후단지 내 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항만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자재 수입부터 완성품 수출까지 가능한 유망품목 및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항만별 타깃 마케팅⁴⁾을 통해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일정기간 부지무상 제공 또는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고 국제적인 우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 사업제안 제도 도입 등의 입주기업 선정방식을 다양화하고, 농·축·임산물 제조·가공업 등의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제한 해소와 제조기업 등의 입주자격 완화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환경도 개선한다.

(2) 지역산업과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연계형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⁵⁾ 지정·운영 및 지자체 참여를 확대한다. 연관산업 간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입주기업 선정방식 등은 항만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가 증가하도록 배후단지 공급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고, 일부 구역은 지자체 중심으로 기업유치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민간투자 수요가 많은 부산, 인천, 평택·당진 등은 시범적으로 민간개발·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항만별 수요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후단지도 확대 공급⁶⁾한다.

(3) 입주부터 기업 경영까지 패키지 지원

항만별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항만공사 등 관리기관에 기업별 전담자 지정 등 통합 행정서비스 제공, 부처·기관별로 운영 중인 배후단지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범정부 지원 플랫폼으로 구축, 배후단지 입주기업과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료 체계 개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조기업과 물류기업 간 임대료 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와 물동량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2) 항만배후단지 :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항만구역 내에 지정·개발하는 지역

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참고

4) 항만별 타깃(Target)마케팅 :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가공무역 유치대상 기업과 항만별 특화구역에 적합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 실시

5)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Zone) : 부산항(환적화물/위·수탁 가공산업 클러스터), 인천항(콜드체인/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광양항(냉동·냉장/석유화학·제철 클러스터), 울산항(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6) 2,970만㎡

■ 러시아 정부 일시적 의료마스크와 의료용품 수출 제한⁷⁾

러시아는 마스크와 붕대를 포함한 거즈, 솜, 보호구, 장갑 등 여러 가지 의료용 제품에 대한 수출을 2020년 6월 1일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제 인도주의적 차원의 의료용품 지원이나 개인 사용 용도를 위한 수출은 제한하지 않는다.

지난 2020년 3월 2일 수출 금지 발표 전까지 2달간 극동 세관 의료용품 수출량은 작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한 총 69톤으로 집계되었다.

■ 러시아 코로나바이러스 상황⁸⁾

3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공무적 성격 이외의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벨라루스 국경 폐쇄

러시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들이 각 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확진자는 114명(3월 18일 기준)으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남부 사마르주, 키로프주(중부), 페름주(우랄산맥 인근), 코미공화국 등 러시아 서부를 중심으로 중부 남부 북부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확진자 급증 초기 (3월 초) 발생한 신규 확진자 3명은 칼리닌그라드, 벨고로드, 모스크바 지역 사람으로 최근 2주 동안 이탈리아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스크바 등 러시아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의 주요 감염 경로는 이탈리아로 밝혀졌다.

한편, (3월 초 기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시베리아 지역으로 유학 온 중국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후 퇴원한 것이 전부다.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선 모스크바는 3월 21일부터 모든 초중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대학에는 온라인 수업 진행을 요청했다. 다음달 까지 모든 50인 이상 참가 실내 행사를 금지 했다.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이용객 감소⁹⁾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한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국제선 이용객이 감소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들어서면서 이용객 수가 감소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연해주 지역의 항공기 이용객 수는 작년 동월 대비 1% 감소한 39만명이었다. 2월의 국제선 이용객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5% 감소한 7만 2천 명이었다. 2019년 2월 국제선 이용객 수는 9만 6천 명으로 2018년 2월 대비 52% 증가했었다. (2019년 한해 전체 이용객은 2018년 동년 대비 17% 증가한 3백만 8천 명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은 2020년 2월 1일부터 중국 정기 운항노선의 일시 중단에 들어갔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은 모든 종류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여객 터미널의 이용객은 연간 약 3백5십만 명이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은 약 20여 개의 항공사와 45개 지역 이상의 노선이 있다.

※ 인천 - 블라디보스토크 항공편은 3월 1일부터 운항 중단되었으며, 4월 25일까지 잠정 중단 예정되어있다.

7) <https://www.rbc.ru/society/04/03/2020/5e5f46589a794784dc421ea4>

8) <https://radiosputnik.ria.ru/20200309/1568344415.html>

9) zrpress.ru/anews/vladivostok_12.03.2020_97668_aeroport-vladivostoka-nachal-terjat-passazhirov.html

● 극동지역 주요 행사 및 만족도 조사

■ 극동지역 주요행사¹⁰⁾

□ 러시아 비즈니스 스쿨(ROST)¹¹⁾

- 장소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내용 : 기업간 매칭(B2B), 강연(교육), 견학 등
- 일시 : 2020.04.22 ~ 04.24
- ※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일정 연기 예상

□ 2020 태평양 국제관광 엑스포(PITE 2020)¹²⁾

- 장소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내용 : 아-태 지역 8개국 이상 참가하는 국제 태평양 관광 포럼
- 일시 : 2020.05.28 ~ 05.31

□ 블라디보스토크 개청 160주년 기념행사

- 장소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내용 : 헌화 행사 및 일반 시민, 현지 기업직원, 소민족, 외국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
- 일시 : 2020.07.03. ~ 07.05(예상)

☞ 행사는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개최 일자 또는 개최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사전에 주최자 측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월간동향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제공 중인 “월간동향”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주기적(월 1회)으로 북방물류, 강원권 물류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오니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는 <https://forms.gle/ZkQC7UiqQYoNkQMp6> 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담당 : 물류연구기획팀
☎ : 033-522-6503

10) 모든 행사 일정은 코로나 19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11) <https://asiarost.com/en>

12) <http://ptfrussia.ru/>